

“소비자 부담 한계”...내란사태에 기름값·외식비 상승

비상계엄후 환율 1430원대 고공행진
원유 수입 등 부담...물가상승 부추겨
울 광주·전남 외식메뉴 가격 4~7% ↑
“유류세 인하 등 경제 대책 마련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휘발유·경유 가격이 이미 9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국내 원유 도입 부담이 커져 기름값 상승세에 불을 붙인 데다가, 수입 식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외식 물가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경제적 변수가 아닌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커져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8일~12일) 기준 광주지역 보통 휘발유 평균판

매가격은 1631.03원으로, 전 주인 1624.87원과 비교해 6.16원 올랐다. 기름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10월 둘째 주 1560.48원과 비교하면 70.55원 비싸지며 9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둘째 주 전남지역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1647.40원으로, 전 주인 1642.17원보다 5.23원 올랐다. 10월 둘째 주 1595.89원과 비교하면 51.51원 올랐다.

경유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둘째 주 광주지역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1473.25원으로, 전 주인 1463.15원보다 10.1원 상승했다. 10월 둘째 주 1389.60원과 비교하면 83.65원 비싸졌다. 전남지역의 경우 12월 둘째 주 평균판매가격은 1486.53원으로, 전 주인 1477.56과 비교해 8.97원 상승했다. 경유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한 10월 넷째 주 1428.84원과 비교하면 57.69원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에는 국제 유가의 지속적 상승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화 약세로 촉발된 환율 급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144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이후 1430원 선을 오르내리며 고공행진 중이다. 13일 기준 올해 연평균 환율(하나은행 매매기준율·1362.30원)보다 무려 70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 원유 가격이 상승하며 국내 소비자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율 상승 여파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향후 외식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8개 외식 메뉴 기준, 이미 올해 평균 4% 이상 오른 외식 물가가 내년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부담에 따

른 것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광주지역 기준 지난 1월 3160원이던 김밥 가격은 지난달 3340원으로 5.7% 증가했다. 지난 1월 9900원이었던 비빔밥은 1만500원으로 6.06% 상승했고 칼국수 가격은 8200원에서 8800원으로 무려 7.32% 증가했다.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7800원에서 8200원으로 5.13% 증가했으며 삼겹살(환산후) 가격은 1만5289원에서 1만5711원으로 2.76% 증가했다. 지난 1월과 같은 가격을 유지한 삼계탕과 자장면 외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전남지역 역시 지난 1월 8778원이던 냉면 가격이 지난달 9222원으로 5.06% 증가했으며, 8611원이던 비빔밥은 9056원으로 5.17% 증가했다. 이외에도 김치찌

개백반, 삼겹살, 김밥 등의 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며 자장면과 삼계탕 가격은 지난 1월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이 같은 외식물가 상승 기조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은 정국 불안으로 인한 가계 부담에 한계를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름값, 외식물가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은 분명 큰 문제다”며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앞으로도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나를 위한 특별한 선물 만나보세요”

광주신세계, 순금 액자 등 선보

올 한해 동안 고군분투했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광주신세계가 다채로운 품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마켓을 준비했다. 천연석으로 만든 주얼리와 순금 액자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제품들을 선보이는 만큼 다양한 고객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아이콘 마켓’을 개최한다. 이날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천연석 주얼리 등 이색 품목들과 함께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핸드백과 침구류 등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천연석으로 만든 주얼리로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스튜디오’가 있다. 매일 착용할 수 있도록 과하지 않은 디자인에 흔치 않은 나만의 주얼리를 찾는 고객들을 위한 스튜디오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원석을 소재로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이번 마켓에서는 은침 귀걸이를 2만9000원에 1+1으로 판매하는 등 여러 품목을 마련했다.

장인이 100% 수작업으로 만든 순금액



광주신세계가 올 한해 동안 고군분투했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채로운 품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색 마켓을 준비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자도 준비됐다. 행운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순금액자는 가정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원하는 고객들이 찾는 것으로 연말연시에 개인이나 단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 순금액자 장인이 만든 브랜드 ‘금수화’가 이번 마켓에서 선보이는 순금액자와 금박액자는 각각 25만원, 3만9000원부터 시작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순금액자를 찾는 고객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예정이다.

아우터와 원피스 등도 마련됐다. 모피

전문 브랜드 ‘지벨린’은 가죽의류를 9만 9000원부터 선보인다. 최고급 소재인 김정 단비 가죽을 활용해 캐주얼과 우아함을 접목한 스타일의 모피 제품을 보여주는 지벨린은 인조 무스탕 아우터를 7만 9000원부터 판매한다. 무스탕 제품 금액 대도 최저 79만원에서 최고 390만원에서 구입 가능해 합리적인 금액의 무스탕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다운 기자

광주테크노파크, ‘RISE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광주·전남 RISE센터와 협약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전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범희승 전남도 인재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해 양 시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기관장(광주RISE센터장 김보현, 전남 RISE센터장 손영근)도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지역혁신중심 RISE 시행을 앞두고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세간에 이목을 끌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RISE 기본계획과 연계한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양 시도 대학간 연계·협력사업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국비확보 공동 대응 등이 담겨있다.

양 시도 RISE센터는 향후 지역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며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취·창업, 지역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는

RISE는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기존에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재정사업·행정적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관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7월 각 시도별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도 전담기관은 2025년부터 지역산업과 연계한 RISE 프로젝트 사업발굴, 사업비 집행, 성과관리는 물론 RISE연계 범부처 협업사업 전반을 추진하게 된다. 각 지자체(RISE센터)는 이번달 20일까지 교육부에 기본계획 제출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대학 선정평가 등 본격적인 RISE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제 1150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8 9 18 35 39 45	2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5억7062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1969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30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금감원 Q&A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문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배터리가 파손됨에 따라 새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답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새로 교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보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포함되므로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하였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문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답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이 약관에 서 규정하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여야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

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했는데, 렌트한 차량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동차보험으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한가.

답 이 경우, 렌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우선 지급

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

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문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한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처리가 가능한가.

답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http://www.fss.or.kr>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